

1. 다음 한자어의 풀이가 틀린 것은?

- ① 미상불(未嘗不) - 아닌게 아니라
- ② 언필칭(言必稱) - 이른바
- ③ 이왕지사(已往之事) - 이미 지나간 일
- ④ 부득불(不得不) - 아니할 수 없어

2. 다음 예문에서 보듯이 한자의 뜻을 빌어 지명을 표기한 예로 제시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것은?

영동군(永同郡)은 본래 길동군(吉同郡)인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으며, 지금 이를 그대로 쓰고 있다. 永同郡 本吉同郡 景德王改名 今因之

- ① 벌말 → 평촌(平村)
- ② 삼베 → 마포(麻布)
- ③ 밤실 → 울곡(栗谷)
- ④ 화성 → 수원(水原)

3. 우리말과 한자어의 대응관계를 나타낸 것 중 틀린 것은?

- ① 너희들 어릴 때 여기 와서 놀던 생각나니?
→ 기억, 회상(回想)
- ② 경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말을 했다.
→ 사고(思考), 사색(思索)
- ③ 깊은 밤이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훨씬 사람이 적었다.
→ 의중(意中), 심중(心中)
- ④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좀 더 기다렸다가 행동할거야.
→ 분별력(分別力), 판단력(判斷力)

4. 다음 글에 나타나는 덕목과 관련 있는 판소리계 소설은?

니보는 농안현 사름이니 그 아비 티방이 사오 나온 병을 어더 거의 죽게 되니 구혀도 효험이 업서 일야의 우더니 꾸메 중이 고혀 널오디 산 사름의 썸를 머그면 가히 도혀리라 뵈 즉시 놀라 씨드라 손가락을 버혀 약글 밍?라뻬 받조 오니 아비 병이 즉시 도혀니라

- ① 춘향전
- ② 심청전
- ③ 흥부전
- ④ 별주부전

5. 다음 중 한자어가 맞는 것은?

- ① 誇張 - 오장
- ② 捺印 - 모인
- ③ 歪曲 - 정곡
- ④ 貶下 - 폄하

6. 다음 소설의 서술 시점에 대한 특징으로 올바른 것은?

선술집은 훈훈하고 뜨뜻하였다. 추어탕을 끓이는 솥뚜껑을 열 적마다 뭉게뭉게 떠오르는 흰 김, 석쇠에서 빠지듯 빠지듯 구워지는 너비아니 구이며, 제육이며, 간이며, 콩팥이며, 북어며, 빈대떡..... 이 너저분하게 늘어놓은 안주 탁자에 김첨지는 갑자기 속이 쓰려서 견딜 수 없었다. 마음대로 할양이면 거기 있는 모든 먹음 먹이를 모조리 깡그리 집어삼켜도 시원치 않았다. 하되, 배고픈 이는 우선 분량 많은 빈대떡 두 개를 쪼이기로 하고 추어탕을 한 그릇 청하였다. 주린 창자는 음식 맛을 보더니 더욱더욱 비어지며 자꾸자꾸 들이라들이라 하였다. 순식간에 두부와 미꾸리 든 국 한 그릇을 그냥 물같이 들이키고 말았다. 첫째 그릇을 받아들였을 제 데우던 막걸리 곱빼기 두 잔이 더 왔다. 치삼이와 같이 마시자 원원이 비었던 속이라 찌르르 하고 창자에 퍼지며 얼굴이 화끈하였다. 눌러 곱빼기 한 잔을 또 마셨다.

- *너비아니: 알뜰하게 저며 갖은 양념을 하여 구운 쇠고기
- *원원이 : 본래부터

- ① 주인공의 내면을 숨김으로써 긴장과 경이감을 드러낸다.
- ② 인물과 독자와의 심리적 거리가 가깝고, 독자에게 친근감을 준다.
- ③ 현대 사실주의 소설에 많이 쓰였으며 극적, 객관적 특성을 갖고 있다.
- ④ 서술자가 작품에 직접 개입하여 독자의 상상적 참여를 제한한다.

7. '경기도'의 로마자 표기로 알맞은 것은?

- ① Gyeonggi-do
- ② Kyeonggi-do
- ③ Gyounggi-do
- ④ Kyounggi-do

8. 다음 보기의 오류로 알맞은 것은?

스쿠루지 사장님, 제 남편의 월급을 올려주시는 것은 마땅합니다. 사장님이 주시는 월급으로는 도저히 제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저의 막내아들 팀이 지팡이 없이 걷기 위해서는 꼭 수술을 해야 합니다.

- ① 부적절한 권위예의 호소
- ②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
- ③ 연민예의 호소
- ④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9. 우리말의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못’은 능력이나 기대의 부정에 쓰인다.
- ② ‘책을 단숨에 읽었다’에는 완료상이다.
- ③ ‘이, 히, 리, 기’는 사동과 피동에 모두 쓰이는 접사이다.
- ④ 상대 높임법의 ‘대우의 등분’에서 ‘해체’와 ‘하계체’는 모두 격식체이다.

10. 다음 시에서 느낄 수 있는 미의식은?

남(南)으로 창(窓)을 내겠소.
발이 한참같이
팽이로 파고
호미론 김을 매지요.
구름이 꼬인다 갈 리 있소.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랴오.
강냉이가 익결랑
함께 와 자셔도 좋소.
왜 사냐건
웃지요

- ① 우아미
- ② 숭고미
- ③ 골계미
- ④ 비장미

11. 판소리와 서양음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판소리에서 소리의 빠르기를 조정하는 사람을 ‘고수(鼓手)’라고 하며, 서양음악의 지휘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

- ② 판소리에서 ‘더늠’은 서양음악의 ‘못갓춘마디’와 같다.
- ③ 판소리는 서양음악과 달리 짜여진 각본이 없다.
- ④ 판소리는 관객의 개입이 가능하지만, 서양음악은 그렇지 못하다.

12. 다음에 설명하는 방법은?

무릇 살 터를 잡는 데는, 첫째 지리가 좋아야 하고, 다음은 생리가 좋아야하며, 다음으로 인심이 좋아야하고 또 다음은 아름다운 산과 물이 있어야 한다. 이 네 가지에서 하나라도 모자라면 살기 좋은 땅이 아니다.

- ① 분류
- ② 분석
- ③ 예시
- ④ 정의

13. 다음 한자성어 중 상황이 이질적인 하나는?

- ① 囊中之錐
- ② 刻舟求劍
- ③ 緣木求魚
- ④ 守株待兔

14. 다음 밑줄 친 시어 중 화자의 정신적 지향점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 것은?

나와
하늘과
하늘 아래 푸른 산뿐이로다
꽃 한 송이 피워낼 지구도 없고
새 한 마리 울어줄 지구도 없고
노루 새끼 한 마리 한 마리 뛰어다닐 지구도 없다

- ① 하늘
- ② 꽃 한 송이
- ③ 새 한마리
- ④ 노루 새끼

15. 다음 밑줄 친 부분에 적합한 속담은?

그 때는 어느 땐고? 팔월 대명일 추석이로구

나. 다른 집에서는 떡을 한다, 밥을 한다, 자식들을 곱게 곱게 입혀서 선산 성묘를 보내고 야단이 났는데, 홍보 집에는 먹을 것이 없어, 자식들이 모다 졸라싸니까 홍보 마누라가 앉아 울음을 우는 게 가난타령이 되었던가 보더라.

- ①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다.
- ②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 ③ 배고픈 호랑이 원님 알아보니
- ④ 풍년에 가난이 더 싫다고

16. 다음 보기가 설명하는 희곡의 특성은?

- 희곡의 등장인물은 분장을 한 인물이지만 실제 인물로 간주하고, 배우의 행동 또한 실제의 행동으로 간주한다.
- 독백과 방백은 다른 등장인물은 듣지 못한다.
- 무대는 가공의 장소이지만, 희곡에서는 이를 현실로 받아들인다.

- ① 희곡은 약속의 문학이다.
- ② 희곡은 현재 진행형의 문학이다.
- ③ 희곡은 무대 상연의 문학이다.
- ④ 희곡은 행동의 문학이다.

17.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내가 이래 () 잘 나가던 사람이야.

인터넷 범죄 유형은 다양해서 잘 ()되지 않는다.

요즘에 ()되는 영화들은 다 재미가 없다.

내가 언제까지 너의 ()를 해야 하니?

- ① 뵤도 - 노출 - 상영 - 뒤통닥거리
- ② 뵤도 - 부각 - 상연 - 뒤통다꺼리
- ③ 뵤도 - 노출 - 상영 - 뒤통다꺼리
- ④ 뵤도 - 부각 - 상연 - 뒤통닥거리

18. 국어에서는 집 이란 의미를 가진 말을 [집]이라 말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다르게 말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알맞은 언어의 특성은?

- ① 자의성
- ② 사회성
- ③ 역사성
- ④ 분절성

19. 다음에서 설명하는 서술의 초점은?

북어를 두드려서 물에 잠시 불렀다가 자그맣게 찢는다. 고기는 납작하고 얇게 썰어 양념한 후 맑은 장국으로 끓인다. 그 다음 촉촉한 북어에 밀가루를 묻혀 끓는 장국에 넣어 끓인다. 먹기 직전에 달걀을 풀어 끓인 국위에 넣는다. 이렇게 하면 북어국이 완성된다.

- ① 행동
- ② 변화
- ③ 단계
- ④ 작용

20. 다음 작품을 발표 연대순으로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 ① 운수좋은 날 - 태평천하 - 광장 -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 ② 태평천하 - 운수좋은 날 - 광장 -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 ③ 운수좋은 날 - 광장 - 태평천하 -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 ④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 운수좋은 날 - 태평천하 - 광장